



표지사진 :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말갈캠프 어린이들이 비스킷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 (2003. 8)

JTS 통권 43호 2003년 9·10월

펴낸날 : 2003. 9.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김연숙, 유미영,
황미숙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특 집

전국 100일 릴레이 캠페인과 거리모금

- 4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튼튼해야합니다
- 7 100일 릴레이 캠페인과 거리모금

인도통게스와리 소식

- 8 데스베라미

지금북한에서는

- 10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소식

- 13 아픈 아이 진단보고

따뜻한 이웃

- 17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함께하는 청담중학교 지구수비대

후원의 소리

- 21 지구 전체가 정토가 되길 ...
- 22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생활

활동보고 및 안내

- 23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 지원 사업
아프가니스탄 소식
국내사업
- 27 신규회원(개인,단체) 명단 및 물품지원
- 29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32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34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모금통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튼튼해야 합니다

법륜스님 / 정토회 지도법사



JTS에서는 백중날을 기해 100일 릴레이 캠페인 및 거리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중날 모금을 시작하는 이유는 백중 즉 우란분재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려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쉽게 말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고통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 60억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며, 그 중 12억은 극빈 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

자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극빈 계층 안에 더 많이, 더 심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동게스와리의 불가촉 천민들은 극빈 계층에 속하는데 그 중에도 여성이나 병든 이들은 더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



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남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에는 빠져버리기 쉽지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신경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다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팔다리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팔다리가 썩는 것을 알아야 치료방법이 생기는 것이지요. 반대로 고통에 빠져버리는 것은 마치 손톱 밑에 박힌 가시에 놀라 손가락 끝의 고통을 집채만 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에는 가시를 빼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고통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집에 돌아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괴로워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도, 빠지지도 말고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회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정면으로 맞닥뜨려 대응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고집멸도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 성스러운 길이라고 하여 사성제라고도 하지요. 그 첫 번째 길이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에 갔을 때 보았던 어린이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더라면 오늘의 JTS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백

명의 아이들은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철역 앞에서 목탁만 두드려도 여기서의 천 원이 그 곳에서는 만 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 달에 한 끼만 굶고 기아 아동에게 오천원을 보내면 한 달 식량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궁지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괴감, 자기 존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우면 내 자신의 가난과 병고를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난하고 병들어든 구제할 방법을 알게 되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물질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도 기아이지만, 비만에 걸린 나머지 먹을 수 없는 것도 기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고루 나누어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의 것을 빼앗아 다른 한 쪽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지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타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서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닐 때, 그것은 인도의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모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이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든 내지 않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개의치 않고 다만 모금을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우리의 모금활동은 세상의 문제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JTS가 인도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조금 알려진 정도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에 1%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에 구세군 냄비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JTS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30년 후에는 JTS가 불교에서 시작된



▲ 모금나가기 전에 나누기 하는 서울법당팀



◀ 거리에서 모금하는 부산법당팀

유니세프 같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튼튼해야 합니다. JTS는 아직 어린 모목과도 같습니다. 이번 백일 릴레이 모금이 JTS의 모금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는 시작이자 돼지 저금통이나 물품 모으기처럼 JTS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첫 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100일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100일 릴레이 캠페인과 거리모금
입재법문 중에서 (2003. 8. 12)



한국제이티에스와정 토회전 국법당이 함께하는 100일 릴레이 캠페인 과 거리 모금

- **제목** /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어린이를 위한 캠페인 및 거리모금
- **목적** / 1. 제이티에스를 홍보하고 후원금을 확보한다.
2. 지역활동가들의 일, 수행능력, 추진력, 책임감 향상과 법당 신도들의 협동력을 증대시킨다.
- **대상** / 북한, 인도, 아프간 어린이지원
- **일정** /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 **진행** / 백중회향을 인도, 아프간, 북한 어린이 돕기 하반기 100일 릴레이 거리모금으로 한다.
- **전국일정** /
부산 8월 12일부터 8월 25일 (14일) / 마산 8월 26일부터 9월 15일 (21일)
울산 9월 16일부터 9월 20일 (5일) / 광주 9월 21일부터 9월 25일 (5일)
대구 9월 26일부터 10월 16일 (21일) / 대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 (5일)
제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 (4일) / 청주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5일)
서울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 (21일)
- **목표 모금액 설정** / 10,000,000원
- **행사진행** /
1. 전국 백중기도 회향날 100일 릴레이 모금 입재식을 하자.
2. 캠페인은 캠페인답게 모금은 모금답게 한다.
3. 전국적으로 같은 발원문을 읽도록 한다.
4. 지역 입재날은 각 지역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한다
5. 행사 시작 시간은 지역에서 지역 형편과 계절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6. 부산은 100일 전체 입재식을 서울은 전체 회향식을 준비한다.
7.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담당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 문의 및 연락 : 김애경 (02-587-8756) ypower@jts.or.kr





데스삐래미

강지윤 / 인도 수자타유치원 자원활동가

I. 데스삐래미

데스삐래미. 올해 3살쯤 되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70cm도 안 되는 키에 7kg정도 나갈까. 그 아이는 눈이 크다. 큰 눈에는 항상 큰 눈곱이 끼어 있고, 그 눈곱 주위에는 파리가 앉는다. 언제나 같은 자리다. 내가 손을 들어 쫓는다. 파리는 저만치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는다. 녀석의 눈뿐만 아니라 상처에도 파리들이 가득하다. 그나마 이 녀석은 쫓을 생각도 않는다. 이 녀석은 유치원에 다니는 누나와 형에게 안겨 오거나 따라 온다. 이 녀석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 오늘도 옷에다 그냥 오줌을 썼나보다. 손은 새까맣고, 콧물이 흐른다. 오늘도 맨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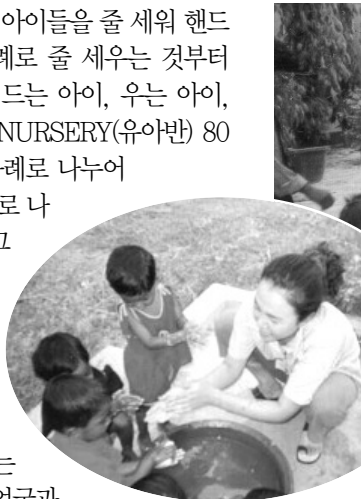
이 녀석은 유치원 학생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녀석과 다르지 않다. 땀띠가 날 것 같은 두꺼운 옷에 때가 구질구질하다. 지퍼가 있어도 고장이 나서 옷이 계속 흘러내리고 바지는 다 찢어지고 팬티는 땀을 전혀 흡수 할 수 없는 나일론이다. 맨발로 돌길을 걸어서 유치원에 온다. 온 몸은 종기와 땀띠로 가득하며, 상처는 치료한

흔적이 없다.

II. 건강한 아이 만들기

우선 유치원 아이들을 씻기기로 했다. 아이들이 씻으면 적어도 땀띠나 종기는 줄어 들 것 같다. 아이들을 줄 세워 핸드 펌프로 간다. 차례로 줄 세우는 것부터가 힘들다. 끼어 드는 아이, 우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 NURSERY(유아반) 80명의 아이들을 차례로 나누어 데리고 간다. 2조로 나누어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담고 비누를 준다. 사용법을 몰라 우왕좌왕 한다. 먼저 비누거품을 내서 손을 씻는 시범을 보인다. 얼굴과 목, 다리를 씻는다. 아이들이 따라한다. 또 한 번 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차례로 씻긴다.

씻고 난 후 아이들의 목과 얼굴에 남아 있는 물기를 닦고 목에 파우더를 뿌린다. 파우더를 뿌릴 때면 아이들은 신





난다. 파우더를 바르기 위해 목을 있는 힘껏 젖힌 모습이 귀엽다. 한국에서 보내준 칼슘 영양제도 한 정씩 나누어준다. 지금 먹으라고 그렇게 일러도 집에 있는 동생을 갖다줄 녀석들은 손에 꼭 챱긴다. 씻고 난 아이들 중에서 아픈 아이들을 일으킨다.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실로 향한다. 서로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아우성이다. 인사를 시키고, 줄을 세우고 차례를 지키라고 가르

핸드펌프에서 물을 받아 씻기는 모습이 뿌듯하다. SUJATA유치원 녀석들은 이제 제법 줄을 설 줄도 알고, 씻고 난 후 플라스틱 그릇을 씻을 줄도 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법을 연습 중이다. 아직 화장실에 가는 게 익숙지 않아 화장실 복도에 불일을 보거나 화단에 그냥 해결해 버리기도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연습 중이다.

SUJATA 유치원 이외의 마을 유치원의 아픈 아이들도 드레싱을 받을 수 있도록 드레싱 박스를 만들어 주었다. 이젠 종기가 난 아이들은 연고를 바르고, 눈병이 난 아이들은 안약을 넣는다. 처음 내가 봤을 때처럼 그렇게 심한 종기와 팜띠는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씻지 않아서, 못 먹어서, 약이 없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땀이 잘 흡수되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신나게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

IV. 종결

데스빠래미. 오늘도 텔레텔레 맨발로 유치원을 올 것이다. 배시시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나마스떼” 라고 할 것이다. 한국에 가면 이 녀석이 보고 싶겠지. 이 녀석을 만나러 가야겠다.



친다. 그리곤 다리의 종기도, 머리의 부스럼도, 배 아프거나 기침이 난 것도 모두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렀다.

III. 2003년 8월

지금은 SUJATA 유치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직영유치원이 cleaning과 powder time을 하고 있다. 아침마다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보고서

WFP 식량분배에서 3백만명 제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유엔 사무소
2003. 08. 14 국제부 역



7월의 식량 지원 공급량 차질로 인해서 약 3백만 명의 수혜자들이 WFP의 식량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에서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 임산부들, 그리고 노인들, 아동시설 종사자들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고아원과 소아과 병원 이동들은 지원 대상으로 남겨졌다. '노동에 대한 식량지원'(Food For Work)의 대부분의 봄철 사업을 위한 제 2차 식량 50퍼센트 분할 지원 분도 지연되었다.

북한정부는 8월 상반기의 2주간 식량분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곡물 9,700톤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로 인해 7월에 제외되었던 수혜자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재개되게 되었다. 서해안지역의 수혜자들에 대한 WFP 곡물 분배는 남한으로부터의 옥수수 10만 톤 지원의 1차분이 도착하는 8월 중순부터 재개될 것이



다. 동해안 지역에 대한 남한 옥수수의 분배는 8월 말경에 개시될 것이다. 일단 재개 되면 곡물 분배는 이탈리아에서 쌀 6,000톤과 밀 13,000톤, 미국에서 쌀 5,000톤, 러시아에서 밀 40,500톤의 추가 지원 도착으로 11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년 1월까지의 6개월간에 약 65,600톤의 지원 공급량 부족이 예상된다. 더 조달이 필요한 식량은 곡물(47,800톤), 콩(5,000톤), 혼합보조식품(CSM; 7,200톤), 설탕(3,400톤) 및 식용유 등이다. 북한내의 식량가공 생산공장들은 재료 재고의 고갈로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홍수 피해

이 달 중에 함경 남·북도와 자강도 및 평안남도는 폭우와 홍수범람으로 일부 군들의 기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다. 현장 조사에 이어 WFP는 함경남도과 자강도내 2개 군에서의 시설복구를 위한 노동에 대한 식량지원 (Food For Work) 계획에 262톤의 식량지원을 승인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홍수 피해가 근소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WFP 북한 현장보고

대부분의 북한도 당국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초기 농작물 수확은 작년보다 훨씬 양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30퍼센트나 증가했다. 순조로운 날씨와 비료사용 증가 그리고 일부지역에서의 경작 면적증가 등이 생산량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금년도 곡물 생산의 약 15퍼센트에 불과한 초기 작물은 공공 배급조직을 통해서 1일간 배급제로 분배되며, 일부는 다음 철의 종자용으로 남겨둔다.

주곡인 벼와 옥수수는 지금 논밭에서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퇴비를 장만하기 위해 풀을 베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로의 배수와 손질, 창고의 지붕 수리 등도 하고 있다. 평안 남·북도와 황해 남·북도에서는 주요 농작물의 병충해도 보도되고 있다. 살충제의 공급량도 총 수요량의 약 반에 불과하고 이를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재래식 방법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한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들의 채마밭에서 기른 닭과 채소, 과일을 시장에서 곡식과 교환한다 한다. 량강도에서는 최근의 정부 결정에 따라서 곧 협동농장들이 그들의 잉여농산물을 한·두 농부를 시켜서 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게 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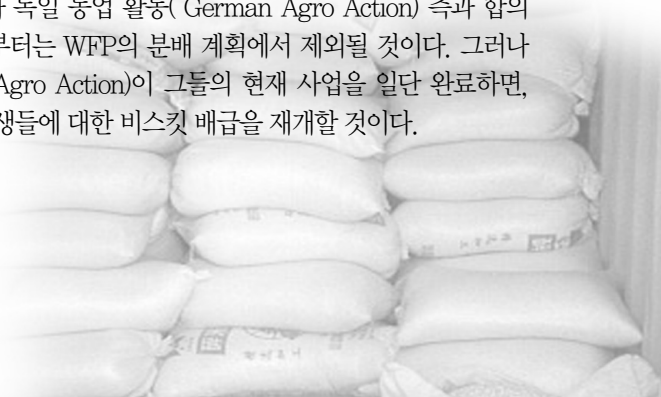
7월에 공공배급센터(PDC)들을 통하여 배급되는 정부의 1일 식량배급은 전국에 걸쳐서 1인당 380그램이었다. 이에 비해 공핍한 7월의 1인당 1일 배급량은 2,000년에는 200그램, 2001년에는 150그램, 2002년에는 300그램이었다. 현재 보는 바와 같은 배급량 증가는 남한에서의 쌀 40만 톤 직접 지원 때문인 것 같다.

북한의 식품생산

7월의 총 생산량은 약 3,560톤이었다. 비스킷 생산은 초등학교의 방학으로 감소하였다. 국수와 혼합식품 생산은 기존 생산품의 분배 지연으로 영향을 받았다. 북한 정부는 각 지역의 식량 생산품을 공장에서부터 해당 시설들과 공공배급센터(PDC)에 수송하는 책임이 있는데, 지방당국들의 보강혼합식품과 국수의 운송편 제공이 느려서 창고의 재고가 누적되었다. 문천 비스킷 제조공장을 위해 구입한 한 대의 밀 제분기가 전달되었으며, 중국에서 온 기술자 한 명이 제분기의 설치를 돕게 될 것이다.

혼합 식품재료, 특히 밀, 쌀, 설탕은 약속된 지원 분의 도착이 지연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 식량 생산 공장들에서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함흥에 있는 혼합식품 공장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200톤의 설탕을 대어했다.

UNICEF가 지원한 3.2톤의 비타민과 5.3톤의 미네랄을 곧 분배하게 됨으로써 보강 혼합식품 제조를 위한 식품재료 재고는 12월까지 지탱될 것이다. 북한 내에서 가공된 식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접수하여 분석하였다. 식품 영양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미량영양소와 식품원료간의 비율에서 나타난 차이는 북한 당국에 통보하였다. 만약 공장들이 승인된 제조법을 따르지 않으면, 북한 내 식품제조 시설들에 대한 WFP의 지원목적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북한주재 NGO의 하나인 독일 농업 활동 (German Agro Action)은 평안북도의 가장 취약한 6개 군의 약 31,000명의 유치원생들을 위해 곡식, 콩, 기름과 보강 비스킷을 매일 배급할 것이다. WFP가 북한정부와 독일 농업 활동 (German Agro Action) 측과 합의한 대로, 이들 시설은 11월부터는 WFP의 분배 계획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 농업 활동 (German Agro Action)이 그들의 현재 사업을 일단 완료하면, WFP는 평안북도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비스킷 배급을 재개할 것이다.





아픈 아이 진단보고

한김지영 / 아프카니스탄 자원봉사자



아픈 아이 선별 과정 ~ 진료

마이완드에서 밀과 기름을 분배하면서 부모들이 영양실조로 인한 병과 피부병, 성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불알이 큰 아이와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 아이의 사진을 찍어 AL-HADI FARHAD 개인 병원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았다.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여 그 아이들과 다른 3명의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캠프로 출발하여 아픈 아이들을 선별했다. 모바일 클리닉이 있으나 간단한 약만 주고 수술이나 영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이완드의 한 캠프를 골라서 그곳에 있는 심각한 병에 걸린 5명의 아픈 아이들을 선별하여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들을 칸다하르 도시의 병원까지 데려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태어난 지 3일이 되었는데 눈에 고름이 끼는 등 실명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아이 엄마는 남편이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했고, Sarda 아빠는 바쁘다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부모들을 계속 설득했으나 결국 3일 된 아이는 못 데려가고 Sarda는 병원에 데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영양실조와 피부에 문제 있는 압둘라, 등이 휘여 잘 못 걷는 Sai, 불알에 문제가 있는 Gani, 목젓에 문제가 있는 Sabira, 영양실조와 눈에 이상이 있는 Sarda 이렇게 5명과 함께 정부 병원에 갔다. 지나 보살님, 선주 법사님, 난민부에서 통역사 이신 Amin 할아버지, 하심



과 나는 5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데리고 정부 병원, 개인 병원을 다니면서 돌봤다. 아프가니스탄은 병원 시스템이 한 병원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피 검사, 결핵 검사, X-ray 검사, 내과 검사, 피부 검사, 오줌-똥검사를 받으러 각각 개별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너무 많은 병원을 다녀야 하기에 시간이 소비되므로 각 아이들을 나누어서 진단을 받았다. 정부 병원이나 GUARDIANCE, 결핵 센터에서는 무료로 진단과 수술을 하였다.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쉽게 의사와 연결이 되고 친절하게 대해 준 것 같다. IDP 사람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진단만 하여 내보내고 우리하고만 얘기하는 눈치였다. 병원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었다. 하룻밤을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서 잤는데, 호텔에서 또한 이 사람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못 머물게 했으나 우리가 부탁하여 같은 호텔에서 머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문맹이라 약을 어떻게 먹는지 분유를 어떻게 타서 먹는지 잘 모르기에 밤에는 호텔에서 부모들에게 약 먹는 방법, 분유 타는 방법, 약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였다. IDP 캠프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약 복용법, 수술 및 치료 날짜를 재확인하고, 영양 비스킷 40개씩,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비와 영양식비를 위해 2100Afg, 보호자 남자에게 신발을 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지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여워 해주니 정이 들어 떠나기 전에 아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부모들도 약수를 청하면서 고맙다고 했다. 1달 후에 다시 칸다하르에 가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았고, 치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픈 아이 진단서

① Sai Jhon

a. 나이 : 5살

b. 성별 : 남자

c. 집안 형편 : 아버지는 30세로 자식이 2명 있고, 나무를 팔아서 연명하고 있다. 어머니는 결핵에 걸려있는데, 아기가 모유를 먹고 있어 아기 또한 결핵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다. 핵에 걸리게 되었다.

e. 진단 :

8월 6일 : 정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X-ray 찍음.

8월 7일 : 결핵 센터에서 결핵인지 확인해 본 후, Guardiance에서 무료로 등뼈 고정 조끼를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무료로 7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결핵 센터에



다시 가서 결핵 약을 조달 받기로 하고, 엄마도 결핵환자이기에 같이 치료받으며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

② Abdula

- a. 나이 : 2년 2개월
- b. 성별 : 남자
- c. 집안 형편 : 아버지는 60세로 노인이기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이는 7명이 있다.
- d. 병명 : 태어난 지 4개월 이후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모유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못 먹고있다. 3~4일 주기로 피부가 좋았다 나빴다한다. 진단 결과 아이는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 e. 진단 :
8월 6일 : 정부 병원에서 진단 이후 개인 내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급성 영양실조이기에 약국에서 영양 분유 4통 (851Afg), 젓병 (34Afg), 약(485Afg)을 사주었다.

③ Gani Mohd

- a. 나이 : 7살
- b. 성별 : 남자
- c. 집안 형편 : 아버지는 60세로 노인이기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이는 4명이 있다.
- d. 병명 : 1살 이후부터 불알이 커졌다고 하나, 통증은 없었다고 한다. 진단 결과 아이는 하이드로신으로써 헤로니언에 문제가 있어 탈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 e. 진단 :
8월 6일 : 정부 병원에서 진단 후 피 검사를 했다.





8월 7일 : 결핵 센터에서 결핵 검사를 하고, 정부 병원에서 무료로 14일에 입원을 하고 16일에 수술을 하기로 했다.

④ Sarda Bibi

- a. 나이 : 12살
- b. 성별 : 여자
- c. 집안 형편 : 아버지는 50세로 VARA에서 벽돌을 나르는 것으로 하루 100Afg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일도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 d. 병명 : 키가 나이에 비해 왜소하여 5살 정도의 아이 키만 했고, 뼈만 남아서 앙상하고, 배에 물이 찬 것처럼 튀어나와있고, 눈은 고름이 낀 것 같았다. 진단 결과 눈에 이상이 있었고, 급성 영양 실조에 장티푸스로 인해 저능아가 되었다고 한다.

e. 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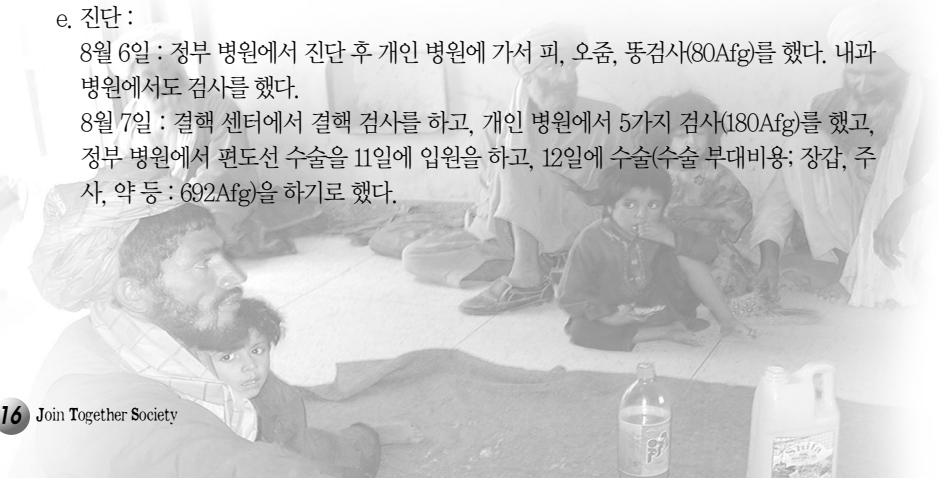
8월 6일 : 정부 병원에서 진단 후 개인 내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 검사를 했다. 안과 병원에서 눈 검사를 했다. (아이 아버지, MoRR의 Amin도 함께 안과 검사 받음 120Afg)
 8월 7일 : AL-HADI FARHAD 개인 병원에서 결핵 확인을 위해 피부 검사(120Afg)를 받았고 8월 9일에 진단서 받으러 오기로 했다. X-ray 검사 (160 Afg)도 했다. 결핵 검사 후 결핵이든 아니든 결핵 센터에서 이 아이를 맡아서 치료해 주기로 했다.

⑤ Sabira

- a. 나이 : 13살
- b. 성별 : 여자
- c. 집안 형편 : 아버지는 2년 전에 간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다. 7명의 남매로 18살 큰오빠가 짐꾼으로 일하면서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d. 병명 : 목젖에 고름이 있었고 통증이 심하다고 했다. 진단 결과 편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 진단 :

8월 6일 : 정부 병원에서 진단 후 개인 병원에 가서 피, 오줌, 똥검사(80Afg)를 했다. 내과 병원에서 검사도 했다.
 8월 7일 : 결핵 센터에서 결핵 검사를 하고, 개인 병원에서 5가지 검사(180Afg)를 했고, 정부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11일에 입원을 하고, 12일에 수술(수술 부대비용: 장갑, 주사, 약 등 : 692Afg)을 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함께하는 청담중학교 지구수비대

땀별 더위에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마음도 나날이 성숙해 지는 때, 거리 모금과 전시회를 통해 성금을 모은 서울 강남구 143번지 청담중학교 박영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저희 단체를 알게된 동기와 학생들과 마음을 낸 동기는 요.

92년도 인도 여행을 하면서 캄케타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더럽고 비참한 곳일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깨끗했지만 눈물이 나서 이들을 바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느꼈던 슬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후 정토를 만나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지요. 학생들에게 해주던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로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학기초에 통일돼지를 분양하고 틈틈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학생 스스로 보다는 교사 중심의 교과서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성취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클럽활동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3학년을 중심으로 봉사와 환경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이름을 지구 수비대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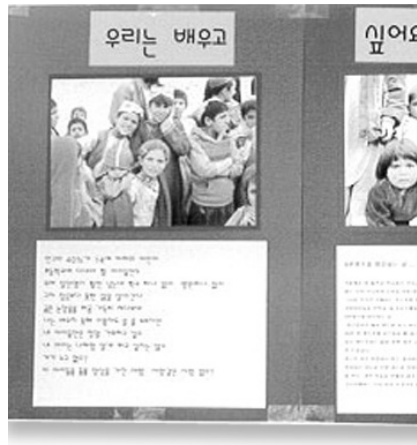
짓고, 대원들 스스로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의 자원활동가를 만들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학생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성금을 마련하셨나요.

북한 어린이 돕기는 우선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가 마음을 내도록 했습니다.

거리모금을 나갈 때는 우선 두 명이 조를 짜서 두 시간 정도 홍보자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교사는 다만 자료집과 사진만 제공하고 일체 어떻게 만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공부가 된 듯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모금통을 들여야 하니까 홍보물을 목에 걸도록 끈을 매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모습에 은근히 기뻐하면서 거리모금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면서 나름대로 격려를 하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나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약속시간이 끝났는데도 오지를 않아 기다렸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처음의 망설임과 자신도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대견해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하자고, 오늘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다들 큰소리를 쳤습니다. 점심을 앞에 놓고 각자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전시한 포스터 ▲▶

아프가니스탄에 텐트학교와 재봉틀 지원을 위해 모금을 했다는데.

1학기의 활동 중에서 대원들에게 가장 보람있고 힘들었던 일은 아프가니스탄 캠프



촌에 텐트학교를 지원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5시간 동안 함께 홍보자료를 만들어 각 층에 붙여 하루 동안 홍보를 하고 3일 동안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일찍 와서 모금통을 준비하고 조를 짜서 각 교실을 돌면서 모금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리모금은 주로 어른들이 모금을 해주시고 가끔 좋은 일을 한다고 격려도 해주시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 힘든 줄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달라 힘들었을 겁니다.

1·2학년 교실에 들어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호응이 없을 때는 선배로써 창피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친하게 지내는 동급생들에게는 새삼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고, 본인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관심한 모습들에서 좌절감도 느끼게 되었고 미움과 닦함이 하기 싫은 마음을 내기도 했지만, 함께 모금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격려에 고마움과 힘을 얻어 점심시간까지 짬을 내어 모금하게도 했습니다.

이번 모금을 통해 대원들이 아주 많이 성숙해 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구수비대 대원은 대장을 비롯해 모두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활동이 대원들의 앞으로의 삶에 힘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지도자로서, 엄마로서 항상 타인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요.

생필품을 모금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텐트학교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필품 수집함을 만들고, 수집하고, 텐트학교를 한 동 세우고, 모금을 하고.....

하지만 이번 일을 끝내면서 내가 한 일 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보잘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염치없이 곁에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만 절절히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은 남은 학기동안 아이들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을 찾고, 겨울방학에는 우리 대원들과 함께 인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내년에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찾고 나누고 싶습니다.





지구 전체가 정토가 되길 ...

원문스님/회원, 울산 고현사

언제 어떻게 JTS를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인연 있는 분이 정토회에 몸담고 계시니 저절로(?) 소식을 듣게되는 경우도 있고, 불교신문 등을 통해서 현재의 활동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한다.

98년도 여름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역사기행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평상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잊혀진 역사의 현장을 한 곳 한 곳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발로 밟아 본다든 사실과 처음 대해보는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는 조선족들과의 만남 등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우리와 며칠동안 일정을 함께 했던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 어린이의 모습,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곡으로 인해 너무나 어른스럽고, 자기 일은 자기가 척척해 내는 모습이 보는 이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한참 자라는 나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자라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골고루 잘 먹는다해도 키는 거의 크지 않고 살만 찐다는 설명을 들었다.

분명 눈앞에서 직접보고 이야기도 해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믿고 싶지 않는 우리 북한동포들의 모습이었다.

왜 그들은 보는 순간 인도에서 만났던 수많은 걸인들을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을까?

현지조사를 위해 역사기행 일행과 헤어져 두만강 주변을 갔다와서 저녁에 소감 발표할 때에 영영 울던 청년의 모습 또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오늘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위해 자기의 삶에 일부분 혹은 삶의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에 비하면 후원회원에 머물러 있는 나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세상」 정기 소식지를 볼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의 활동 상황과 후원회원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낸다. 진정 이 지구전체가 정토가 되어 더 이상 정토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정토행자들이 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바란다.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생활

양지연/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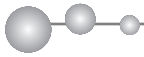
사회복지 실습을 계기로 한 달간 제이티에스(JTS)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다. 이 곳에서 일하기 전에는 제 3세계 구호는 나에게 낯선 것이었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바도 없었다.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이슈에만 익숙해져 있는 나에게 다른 세계를 구호하는 일은 멀게만 느껴졌고 어느 정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무 첫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이티에스(JTS) 홍보비디오를 보았다. 이제껏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있을까 싶은 먼 나라 아이들 영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아이들 영상이 울컥울컥 가슴으로 치밀곤 했다. 내가 배고프듯 그 아이들도 배가 고프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듯 그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국경, 인종, 종교를 초월한다”는 말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실습을 하는 기간에는 주로 인도 워크캠프(work camp)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의 인적·물적 자원동원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더운 여름에 인도라는 그 먼 나라에 기꺼이 가려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과 인도에 보낼 물품후원(헌옷, 문구류 등등)이 각처에서 개개인들의 성의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실습을 종료한 후 가장 남는 것은 일반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장에서 나를 적용시켜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실무자들의 무보수 자원봉사 개념의 운영체제,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생활과 종교에 기반하고 있지만 항상 열려있고 수용하는 정신들은 깊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었다.

이제 제이티에스(JTS)로 돌아가면 나는 실습생이 아닌 새로운 자원봉사자로서 있게 될 것이다. 여러 다양한 인연에 의해 모인 많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인도지인 및 현지활동

● 제5차 국제워크캠프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15박 16일동안 인도 동게스와리 가왈비가, 까나홀, 바가히, 만코시힐, 자그디스푸르 마을에서 약 4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지역에 배수로 공사, 목욕탕 짓기, 아이들 씻겨주기 등의 프로그램과 또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문화교류도 가졌다.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인도 해외봉사단 인도에 다녀오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 1차 인도 해외봉사단이 7월 14일에 인도로 출발해 8월 5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약 50여명의 대학생들이 동게스와리 4개 마을로 들어가서 목욕탕 만들기, 화장실 짓기,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하고, 또 마을 아이들을 위해 목욕시키고 상처를 치료

하고 새 옷을 입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외 페이스페인팅, 벽화 그리기, 매직 풍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했다.

다년간 경험이 있는 해외사업부 김경희(지혜명)님이 인솔하였다.

● 수자타아카데미전원생에게 비옷 대용품 지급

수자타 아카데미는 우기를 맞아 비닐을 대량 구입 고깔모양으로 바느질하여 비옷 대용으로 전교생에게 지급하였다. 비옷이나 우산 후원 필요합니다.

● 뿌리양가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선생님 한국에 오다.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참여불교 세계대회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여 정토회 지회, 학교, 사찰, 공장 등을 견학하였다.

● 농번기 방학

벼 모내기 농번기를 맞아 수자타 기술학교와 청소년 노동학교가 8월 2일부터 약 10일간 농번기 방학을 가졌다.

● 자원봉사자 소식

진혜미(7월 3일), 최지혜(7월 16일), 배연수(8월 13일)님이 6개월 자원봉사를 위해 새로 오셨습니다.

조영옥(5개월) 7월 26일, 장석우(10개월) 8월 3일, 김태정(7개월), 양유석, 최정란, 정기연, 정수현, 이미정(5개월) 8월 6일, 강은희(1년), 이성룡(5개월) 8월 15일 자원봉사를 마치고 회향하셨습니다. 오신 분들·가신 분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북한 지원 사업

● 라선지역 영양식 물품지원



9월 2일 부산에서 라선지역 탁아소·유치원에 보낼 입쌀 30톤, 옥수수쌀 9톤, 설탕 14톤, 분유 14톤을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소식



칸다하르 지역 마르칼 캠프, 무산 캠프, 투루칸 캠프, 마이완드 캠프, 키스키르 헛 캠프 등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주었다. 모두 쿠폰을 들고 와서는 받아갔는데 대체로 장애인과 노인, 과부들이었다.

국내사업

● 라오스대사 사무실 방문



지난 6월 14일 라오스대사와 라오스 보건성에서 근무하는 그의 딸이 함께 jts를

방문하여 유수스님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들은 라오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앞으로 jts에서 라오스 빈민 농촌지역에 구호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갔다.

●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동그라미어린이집을 찾아서



지난 7월10일 (목)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동그라미어린이집(원장 공형선님)을 방문하여 서울법당 복지담당 송하경, 김희수, 안정혜님, 홍보부 최양희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과 색종이 접기,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다.

● 신방학중학교 자원활동부 세상의 촛불팀 거리모금

지난 6월 21일 (토) 신방학중학교 클럽활동부인 '자원활동부-세상의 촛불' 팀은 모금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남부 터미널에서 박선화선생님과 2학년 10명이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을 하였다

●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 돼지저금통이 설치되다



김중수님의 홍보로 서초3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점)에 통일돼지 저금통이 진열되어 은행을 찾는 분들의 따스한 손길을 모으고 있다. 은행에서 돼지저금통을 만나면 성의 보여주기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은행에 진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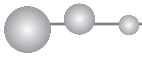
● 청담중학교 3학년 지구수비대 교내에서 아프칸 성금 모다.

지난 7월 15일(화)부터 7월 18일(금)까지 청담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모금이었다.

선생님들께서 1,105,000원을 모아 주셨고 청담중학교 전교생이 696,230원을 모아 총 금액 1,801,230이 모였다.

위 금액으로 텐트 2동을 세우고 나머지는 재봉틀을 지원한다.

청담인들의 크고 따뜻한 사랑이 하나로 모여 지구촌을 위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깡이부리말 아이들」 동화작가 김중미 지정 기탁

지난 8월14일 도시 변두리의 가난한 어린이들의 삶을 소재로 한 「깡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JTS북한돕기로 5백만원을 지정 기탁하였다. 김중미씨가 지원한 후원금으로 하반기에 함경북도 청진지역의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내복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만석동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 일본 피스나우코리아자판과 한국제이티에스가 함께하는 북한 어린이 돕기의 날



지난 8월11일 피스나우코리아자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평화 단체 회원 19명이 JTS를 찾아 유수스님의 북한 گیا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점심 식사 후에

는 그 팀이 일본 시내에서 거리 모금한 장면을 비디오키로 보고, 북에서 온 방미문(가명)님의 현지 상황을 상세히 들었다.

오후에는 명동에서 청년정토회 회원, 한국JTS 실무진들과 1시간 동안 거리모금을 하였고 이후 청년회원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금한 돈은 339,210원이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북한어린이 모금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 일본 젊은 청년들의 활동은 참 감동적이었다.

● 세계청년봉사단 (KOPION) 제 9기 인도 파견



코피온 9기 인도자원봉사자 2명(박혜란, 정가영)이 8월 22일 인도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약 8일간 정토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6개월간의 인도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갔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다 오기를 바란다.



신규 회원 (개인, 단체) 명단

2003.06.01 - 2003.07.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염지인 211-11759-11
 황용진 211-11760-11
 백춘화 211-11761-11
 서혜원 211-11762-11
 조현주 211-11763-11
 오미라 211-11764-11
 이상숙 211-11765-11
 이일중 211-11766-11
 유영선 211-11767-11
 한금순 211-11768-11
 김숙경,윤원호 211-11770-11
 진리라 211-11771-11
 박일화 211-11772-11
 이광수 211-11773-11
 조규현 211-11774-11
 장금자 211-11775-11
 박정란 211-11776-11
 황복희 211-11777-11
 김옥순 211-11778-11
 길영희 211-11778-11
 이지은 211-11780-11
 박이영 211-11781-11
 이덕기 211-11782-11
 강원자 211-11783-11

전명찬 211-11784-11
 박연진 211-11785-11
 김옥경 211-11786-11

인도 어린이 결연

유길용 111-03104-14
 오태양 111-03105-14
 김혜원 111-03106-14
 이효순 111-03107-14
 윤정택 111-03108-14
 강윤규 111-03109-14
 유성희 111-03110-14
 정윤점 111-03111-14
 정희연 111-03112-14
 황정희 111-03113-14
 최옥녀 111-03114-14
 박정옥 111-03115-14
 박선미 111-03116-14
 정재훈 111-03117-14
 박미라 111-03118-14
 이용문 111-03119-14
 고대현 111-03120-14
 정태순 111-03121-14
 김수정 111-03122-14
 윤정임 111-03123-14
 김윤정 111-03124-14

신영희 111-03125-14
 김민경 111-03126-14
 김연수 111-03127-14
 신혜정 111-03128-14
 곽선정 111-03129-14
 우소연 111-03130-14
 지선주 111-03132-14
 정수걸 111-03134-14
 정정아 111-03135-14
 김혜선 111-03136-14
 김중수 111-03137-14
 김태호 111-03137-14
 양현정 111-03139-14
 정재홍 111-03140-14
 김병삼 111-03141-14
 윤경규 111-03142-14
 박숙정 111-03143-14
 오미경 111-03144-14
 신순영 111-03145-14
 박영숙 111-03146-14
 이동훈 111-03147-14
 노인희 111-03149-14
 최해정 111-03150-14
 김애리 111-03151-14
 노우석 111-03151-14
 피경순 111-03153-14
 오수연 111-03154-14

신소연 111-03158-14
 이명행 111-03159-14
 심성혜 111-03160-14
 권순옥 111-03161-14
 박복운 111-03162-14
 강건 111-03163-14
 조선희 111-03164-14
 이상민 111-03165-14

결핵퇴치회원

정미선 311-00285-13

아프가니스탄회원

최병진 511-00126-15
 염용하 511-00127-15
 한상태 511-00128-15
 배윤숙 511-00129-15
 이명희 511-00130-15
 정윤정 511-00131-15
 유영석 511-00132-15
 박경남 511-00133-15

단체결연

팔달사청년회 212-1769-11

특별후원금

김태분 10,000 이수민 100,000 조옥분 30,000 대구정토회모금함 90,000 신영애 1,000,000 최정섭 10,000 김상률 300,000 김현자 60,000 전병화 20,000 최항주 50,000 김영수 50,000 조연옥 20,000 윤영희 8,000 유재연 50,000 정규희 500,000 이한우 1,000,000 대구정토회 260,710 정평화 10,000 박기선 200,000 김선자 150,000 이경희 50,000 문상인 100,000 박운식 50,000 최경순 50,000 김보미 80,000 이태주 50,000 마산중앙교고2학년수확여행단 63,000 센벨여고 60,000 경남외고SFC 100,000 광불사송광현 1,500,000 청안사 1,500,000 안지혜 안병길 안순호 7,100,000 오선주(뉴욕) 99,120 구룡사정우스님 1,180,000 임태경 300,000 서울정토1층모금함 29,400 송은호 150,000 정남식 500,000 대청월 30,000 연규민 150,000 김동열 10,000 김세인 10,000 김동현 10,000 신인숙 1,000,000 김광숙 1,000,000 권순일 30,000 박오신 100,000 실상사작은학교학생일동 547,150 통학사주지스님 2,000,000 염용하 20,000,000 최병진 5,000,000 한상태 5,000,000 정귀조 2,800,000 정인권내과 1,000,000 염지원 염지원 1,000,000 울산정토회 3,000,000 신인숙 1,000,000 김광숙 1,000,000 박기범 150,000 정영숙 150,000 윤원중 200,000

아프칸 텐트후원

안미숙 50,000 박귀련 10,000 고관숙 115,000 박분남 10,000 박성연 10,000 김경희 10,000 정옥남 30,000 김경희 20,000 천정숙 20,000 고정희 10,000 문길련 100,000 최정숙 100,000 강민전10,000 윤희자 100,000 이경선 10,000 송부순 100,000 김영길 10,000 최성희 100,000 최희자 10,000 부산정토회자원활동가 100,000 오영자 10,000 유미나 50,000 고정희 10,000 안병예 50,000 김영선 1,000 김희숙 50,000 오원순 10,000 원치황 720,000 김보미 380,000 오미라 50,000 조완제영가 1,500,000 김영태 30,000 김형수 343,000 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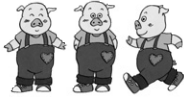
선 100,000 노지호 10,000 이봉순 100,000 노혜원 10,000 광영숙 720,000 김남순 720,000 김진홍 5,000
 강선영 5,000 조성은 5,000 최수영 30,000 청담중 1,440,000 권영미 470,000 조정주 500,000 서상선
 27,300 방정숙 20,000 안지순 20,000 이은삼 5,000 김영란 5,000 임영란 10,000 최미숙 10,000전재연
 10,000 류윤영 10,000 유영미 10,000 김미소 10,000 박희나 10,000 장영주 10,000 최해경 10,000 박영운
 10,000임효정 10,000 박해정 10,000 이영희 10,000 홍현숙 10,000 김희수 1,000,000 김태균 100,000 정용
 기 100,000 김기진 1,000,000 무주상 1,000,000 김도영 720,000 장성호 100,000 김환기 100,000 안정화
 안병걸 안지혜 2,160,000 최대성 720,000 최지훈 720,000 부산청년정토회 2,000,000(교윤경 김경나 김명숙
 (관음행) 김명숙 김민정 김선희 김순영 김승도 김영림 김지연 김지은 김혜진 류성자 박길미 박지숙 박지원 박진
 우 박진현 박현희 서은정 송진숙 신주영 심미경 안병주 유상웅 윤숙경 윤선영 윤현정 이경희 이대희 이수경 이수
 려 이지영 이혜일 장도연 전정하 정보경 정삼덕 정수걸 조윤상 조재성 조협 최광수 최정식 최홍권 허애영)

아프킨 재봉틀후원

박복순 50,000 김선에 50,000 이경호 50,000 정성모 100,000 김준배 100,000
 정상만 50,000 정상신 100,000 정현주 50,000 박옥란 20,000 정연화 50,000 김
 윤희 50,000 이한순 10,000 나찬분 50,000 정지남 50,000 강수경 50,000 신중
 석 50,000 이상민 10,000 양창순 150,000 서동령 50,000 서동우 50,000 신동윤 50,000 민병숙 150,000
 김재영 50,000 이윤현 50,000 박준자 50,000 김수영 50,000 김동윤 50,000 박현숙 50,000 이향중
 100,000 최수진 60,000 민병숙 50,000 홍기자 100,000 박재신 100,000 조영자 50,000 민경근 50,000 정
 남식 50,000 최덕해 50,000 김민영 50,000 김반야술 100,000 이태성 100,000 최병연 50,000 배원준
 50,000 김동영 50,000 배정인 50,000 정미숙 50,000 유현식 50,000 박근희 50,000 변우식 50,000 김종
 덕 50,000 정경주 50,000 원치황 50,000 익명 100,000 윤현정 50,000 정삼임50,000 구포중 30,000 김남
 순 50,000 조민규 100,000 박순덕 50,000 이혜정 80,000 청담중 362,390 권영석 30,000 권영진 30,000
 김영희 50,000 권영미 35,000 김민옥 50,000 박경순 50,000 김광혜 50,000 김은숙 500,000 이호진
 50,000 최누리회 100,000 허재순 20,000 장영석 10,000 강재사 10,000 Gianni 200,000 임양호 50,000
 김순자 59,000 윤상은 50,000 박덕환 100,000 김영득 48,000 공소분 48,000 황미숙 500,000 호상숙영가
 3,000,000 남윤성 50,000 권소윤 50,000 황귀숙 50,000 이정선 50,000 임영호 50,000 김도영 50,000 성
 은정 50,000 묘혜 50,000 김민정 50,000 안정환 안병걸 안지혜 850,000 김승윤 이아주 50,000 권병두
 50,000 정미숙 50,000 김도현 50,000

물품 후원 2003년 6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JTS로 들어온 물품내역입니다.

- | | |
|---|--|
| 1. 불법사 면티 138장 | 22. 자원경 양말 130, 팬티 101, 런닝 60, 찻술 8 |
| 2. 부산법당 비누 466, 지우개 54, 담요 등 생필품과 문구류 5박스, 재활용의류 3박스 | 23. 김은자 삐콤씨 6, 세라스톤지 15, 오라메디 10, 실마진 5, 테라미아신 2, 의로기기 도구함 12, 핀셋 13 |
| 3. 대전법당 수건 32, 비누 38등 생필품 2박스 | 24. 청담중 재활용의류 2박스 |
| 4. 울산법당 티셔츠 218장, 재활용의류 2박스 | 25. 신정재 재활용의류 1박스 |
| 5. 동학사 남양말 62, 여런닝 26 등 남녀숙옷 2박스 | 26. 신방학중 재활용의류 2박스 |
| 6. 김옥희 도교약 68, 바세린거즈 8, 거즈 75 | 27. 임순옥 노트 2박스, 재활용의류 2박스, 남녀여린의류 80,배내우 등 |
| 7. 서울법당 수건 48, 치약64, 비누134 스케치북 30등 생필품 및 문구류 5박스 재활용의류 4박스 | 28. 이혜정 재활용의류 1박스 |
| 8. 서울 무주상 어린이의류 상의 152, 하의 103 | 29. 손미옥 재활용의류 1박스 |
| 9. 서울 무주상 비누 31 | 30. 이혜정 재활용의류 1박스 |
| 10. 묘연스님 양말 72 | 31. 대구법당 재활용의류 3박스 |
| 11. 마산신발나라 어린이신발 500 | 32. 동학사 양말 62컬레 |
| 12. 월드컵 마산대리점 어린이부츠 2000 | 33. 금천선원 수건 28, 양말 37, 비누 42, 행주 28, 운동화 23, 연필 38, 등 생필품 및 문구류 4박스 |
| 13. 김중수 타올, 비누, 찻술, 치약 30세트 | 34. 손옥순 재활용의류 1박스 |
| 14. 독일 수술휘 모자, 장갑, 가운, 반창고 등 의료용품 1박스 | 35. 진운사 양초 3박스 |
| 15. 김민경 유아바지 10 | 36. 노혜숙 비누 20,양말 2 |
| 16. 김해경 수건 12 | 37. 윤호남 비누 2, 빨래비누 3 |
| 17. 성남타올 양말 209장 | 38. 안수정 칼라펜 1통 |
| 18. 신방학중 크레파스 1박스 | 39. 동학사 양초 3박스 |
| 19. 청주법당 수건 24, 비누 24, 공책 12, 책받침 12 등 생필품 및 문구류 3박스 | 40. 명인제약 비오리민정 6통(3000정) |
| 20. 청담중 비누 22, 운동화 2, 수건 5, 치약 9, 손수건 5 | 41. 태광우의 동대문지사 우의 4벌 |
| 21. 김유민 개량한복천 1박스 | 42. 박근숙 우의 38벌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광주

광주비아중 3학년3반 111,960

○ 대구

강병철 19,570 거리모금 5,209,800 거리모금 501,830 거리모금 (임은숙) 265,430 거리모금 (임은숙-인도약품지원) 1,011,520 거리모금 (희열광,보월광,모덕왕) 147,570 고희훈 47,230 고금례 14,290 박정옥 34,010 박혜일성 26,000 권미라 32,740 권미라 16,690 권영순 29,660 김경아 24,280 김성은 8,000 김양모 18,150 김영수 26,000 김영호 8,100 김위숙 8,720 김정목 24,730 김중명 19,920 김현자 52,940 노영숙 21,950 노재복 20,910 대한생명 33,000 류귀영 26,460 명심각 29,040 명심각 29,750 무주상 14,370 무주상 25,530 무주상 2,990 문영순 22,920 박난주 51,000 박옥자 23,650 박정선 23,610 박종호 23,250 박희연 22,850 변외환 22,970 불교방송 김양모 25,410 서정룡 21,810 서정룡 24,760 세왕 49,300 손영삼 30,950 수성 2,3가 새마을금고 9,020 신동헌 32,580 안병걸 55,160 안병우 26,150 윤문사 26,080 윤문사 27,430 윤문사 27,390 윤문사 22,090 윤문사 27,880 윤문사 22,170 이강민 26,630 이미경 26,790 이수민 31,570 이수윤 30,820 이수준 35,370 이승숙 12,210 이재수 7,450 이준호 27,970 이태화 21,250 장건 16,260 장금옥 30,070 장미미용실 39,000 전병득 114,320 전병화 12,230 정은경 56,200 정평화 27,880 조옥분 28,760 조용윤 16,010 채정기 28,400 청안사 25,550 최영숙 31,880 최정옥 28,810 최창주 20,230 최창주 16,610 한성숙 34,450 한송이 31,950 홍삼파낙스 10,650 휴일스님 23,050 희열광 46,970

○ 대전

갈매기 해물탕 5,520 강정옥 4,720 거리모금 562,470 거리모금 116,820 거리모금 (이계일) 20,400 거리모금 (이계일,전외자) 102,750 거리모금 (전외자,이계일,김남숙,유인자,김정숙,정경주) 171,820 거리모금 (전외자,이계일,이숙희) 145,260 광동오 10,000 광영술 31,380 길연범 10,920 김경혜 18,290 김관용 21,000 김덕숙 2,780 김도현 14,800 김두리 23,520 김묘정 22,520 김미혜 24,340 김유경 10,010 김정숙 14,290 김주리 20,800 김지홍 9,380 김태용 26,220 김태풍 29,440 김혜진 2,600 남현정/남현승/남윤성 14,240 동춘학의원 19,450 무주상 9,800 무주상 21,830 무주상 18,610 무주상 1,780 무주상 36,780 무주상 11,710 무주상 2,010 무주상 4,090 무주상 8,130 무주상 2,900 무주상 8,350 무주상 8,350 무주상 3,130 무주상 6,500 무주상 1,320 무주상 4,610 무주상 4,690 무주상 18,060 무주상 6,240 무주상 7,690 무주상 6,290 무주상 2,530 문성임 4,980 밀라노 2,820 박지현 27,980 박찬익 2,460 박찬욱 1,480 배재대식당 16,640 서덕현 3,190 서만평(민정) 6,510 설용진 2,450 송해정 3,960 신광호 74,880 신광호(자재왕) 21,370 신길후 7,860 신도(무주상) 5,850 신도 정육점 4,380 실비식당 3,160 양해옥 14,020 엄미자 2,790 오세영 15,380 오수진 19,230 원유진 23,150 유인자 29,000 윤영희 24,200 은하유치원 31,410 이규희 19,170 이금봉 52,720 이기형 25,530 이연화 24,000 이연화 17,790 이재경 10,310 이정 미용실 15,920 이정선 22,270 임경희 3,300 자재왕 32,120 정경주 24,030 정성목 30,670 정익평 10,100 제순희 18,020 조완수 3,860 중국석(오세홍) 12,470 중앙불교 15,410 진행자 21,000 한영자 20,750 흥한별 1,910 황귀숙 54,760 황소집 2,210 흥한별 1,540

○ 마산

거리모금 800,180 거리모금 663,800 구경진 11,000 김귀동 12,500 김귀영 26,030 김길자 6,190 김순임 19,100 농협중앙회마산지점 21,500 무주상 12,270 무주상 33,750 무주상 15,770 무주상 6,050 박유진 14,950 박제일 19,490 윤도경 17,830 정미숙 47,140 정연순 28,390 정홍자 52,180 창원병원 8,510 최재두 23,090 최재두 16,880 허정연 22,560 황선옥 22,120 황수재/황수민 19,920

○ 부산

강봉문 1,950 강양중 18,370 거리모금 (윤명옥) 358,000 김경민 3,050 김기덕 13,510 김남영 2,720 김미숙 50,670 김상조/김석조 19,280 김선일 3,030 김수빈 4,600 김순옥 28,030 김영록 6,620 김영순 19,680 김지섭 25,190 김지희 8,660 김창일 27,190 김하나 2,900 김혜진 19,270 도성용 27,200 무주상 13,770 무주상 11,250 무주상 2,530 무주상 37,450 무주상 29,020 무주상 64,460 무주상 14,470 무주상 5,500 무주상 12,130 무주상 24,950 무주상 2,760 무주상 20,490 무주상 8,430 문성연 33,450 문한솔 8,080 민병호 12,370 박귀련 25,250 박미리 5,060 박은정 18,270 박형준 8,800 법문주 100,750 법문주 109,150 법문주 118,820 손이예쁜아이 20,710 심수현/심수용 23,220 오성훈 20,480 윤혜빈 13,410 이경선 23,260 이남선 22,730 이민형 2,040 이수지 4,280 이장산 9,420 이화경 62,620 임귀선 9,800 장 권 7,520 전진경 7,350 정나영 18,240 정다영 30,720 정미화 9,200 정혜민 8,700 정혜민 35,900 제영희 16,820 주경림 9,500 주용근 28,860 진인배 20,410 천재옥 4,980 최광수 30,850

○ 서울

강명옥 500 강법경심 25,840 강영희 440 강옥 1,200 강유미 102,740 강유미 18,820 강주용 25,750 강지연 26,000 강지영 18,600 강철남 1,000 강희석 35,500 거리모금 (설갑문) 157,000 고정곤 22,740 국민은행 50,000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11,720 권도법석 45,000 권영민 47,390 권영진 14,360 권오분 6,130 권옥순 1,200 권혜숙 23,580 권혜숙 22,730 기리새롭 22,060 길주옥 10,880 김광성 5,500 김광희 2,600 김기범 8,150 김기숙 14,460 김나영 13,220 김다진 21,740 김동국 1,100 김만수 1,600 김명숙 27,400 김명혜 22,290 김미혜 29,200 김민정 16,040 김민정 6,920 김민호 18,050 김성룡 1,800 김성일 11,100 김순이 1,400 김순희 800 김승옥 15,730 김애경 16,880 김애자 22,970 김영복/김선일 1,700 김영희 1,200 김옥 1,400 김인철 14,500 김재석 7,210 김재천 5,000 김재천 5,000 김재희 22,950 김정길 2,700 김정숙 11,780 김정숙 10,000 김정숙 10,000 김정훈/김창화 3,000 김지원 26,000 김지훈 31,020 김지훈 23,210 김창옥 400 김춘/김경애/최화숙 2,330 김춘화 6,600 김태균 18,570 김판동 18,220 김현정 19,430 김현호 22,060 김혜련 40,000 김효태 28,170 노희경 53,270 노희경 103,020 대상식당 7,140 도곡초등학교 43,150 로순덕 26,360 마순희 860 묘당 12,930 무주상 3,670 무주상 27,500 무주상 14,170 무주상 35,410 무주상 19,410 무주상 3,310 무주상 940 무주상 11,290 무주상 24,570 무주상 11,540 무주상 8,110 무주상 9,160 무주상 1,142,980 무주상 6,120 무주상 1,600 무주상 3,000 무주상 3,000 무주상 24,940 무주상 23,500 무주상 22,810 무주상 27,000 무주상 24,330 무주상 22,280 무주상 4,660 무주상 2,000 무주상 160 무주상 2,000 무주상 240 무주상 550 무주상 2,000 무주상 1,100 무주상 2,070 무주상 3,410 무주상 2,000 무주상 1,100 무주상 3,600 무주상 2,250 무주상 2,200 무주상 1,610 무주상 8,500 무주상 1,000 무주상 2,200 무주상 290 무주상 1,500 무주상 1,000 무주상 2,6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100 무주상 1,230 무주상 1,610 무주상 1,570 무주상 1,900 무주상 1,100 무주상 2,210 무주상 1,020 무주상 77,340 무주상 26,210 무주상 95,39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70 무주상 3,000 무주상 1,070 무주행 7,010 문경가은마트 20,820 문옥별 1,000 문혜숙 750 박경우 5,900 박광남

5,000 박광윤/허원민 6,400 박남호/염은희 4,000 박명철 850 박복순 2,900 박용길 1,480 박은실 2,000 박은우 22,170 박정실 4,150 박지현 20,800 박해옥 1,250 박혜상 13,430 박해옥 890 박훈화 300 배금화 5,200 배전철/오미화 1,950 배정한 70,000 백단심 54,200 백복기 1,000 보리행 12,520 보리행 언니 16,200 복지팀모금 26,000 복지팀모금 161,910 불교대모금 218,770 불교대모금 (김순연) 154,860 서선화 1,000 서영순 1,000 설갑문 13,340 성남중학교 101,500 손영희 11,090 송선자 32,400 송승희 9,250 승가원 11,290 승가원 39,280 시설관리공단 19,500 신아 16,130 안두영 29,600 안부금 28,300 안성철 1,250 안희찬 2,370 안희찬 21,890 양해령 7,230 염을룡 7,050 오명숙 5,400 오윤정 41,970 오춘옥 13,460 오학순 19,250 오행순 36,150 용빈각 13,660 유동욱 22,980 유동호 24,220 유명열 700 유승열 23,810 유정란/박영식 2,100 유하연 26,330 유현욱 23,260 윤봉준/한설빈/한태훈/김나래/김예찬/김가영/신준호 19,750 윤상은 25,040 윤선재 30,530 윤성란 3,030 윤순식 1,000 윤영주 46,820 윤정희 18,440 윤표 27,630 윤효남 13,160 이경진 30,870 이광일 1,230 이덕기 18,560 이동희 1,400 이상임 42,170 이선희 3,010 이승기 37,900 이영남 24,600 이영화 2,580 이용희 21,490 이우철 4,470 이은성 780 이은철 2,000 이정숙 18,430 이정숙 1,000 이정실 3,000 이정애 2,000 이정옥 4,100 이준구/임양선 76,400 이찬종 5,580 이창성 1,000 이철수 2,110 이향춘 1,100 이효동 23,260 이효순 29,230 이효용 21,630 임규희 26,350 임미혜 17,880 임충일 2,050 장갈남/진창민 2,000 장명하 21,680 장문임 24,960 장문임 22,840 장순남 2,000 장옥희 10,050 전정남 2,000 정경옥 1,240 정든영 43,870 정병준 1,800 정승욱 5,000 정영실 1,000 정영호/김태남/노재훈 2,200 정유한 32,700 정의성/한정숙 3,750 정재아 56,760 정훈 47,860 정홍식 8,110 정홍식 32,060 조건행 3,550 조남희 25,370 조명실 1,000 조옥민 1,000 조옥희 1,650 조정숙 2,000 조정희 23,550 주용숙 130 주은미 17,840 주은미 11,040 최미자 21,690 최분한 2,000 최승희 3,000 최영동 26,110 최윤희/이승규 21,300 최정미 4,900 최정연 24,090 최희선 24,740 틱낫한 스님 39,120 하나원 39기 일동 20,000 한발레츠 70,860 한울부페 13,420 한정선 1,990 한지연 13,690 함송화 1,300 허진혁 22,840 황철욱 400 희선 4,970

○ 울산

김민선 18,060 김용한 12,960 박현성 27,590 배소옥 10,480 안근오 21,530 어린이날모금 737,550 이봉애 10,420 정인권 20,360 정재삼 22,330 정진우 10,960 최옥자 14,610 황현군 22,880

○ 제천

거리모금 (유윤식) 168,840 거리모금 (유윤식) 129,850

○ 청주

거리모금 337,470 기흥진 27,880 김윤희 22,760 박재신 26,250 박정훈 32,450 수민당 32,760 양창순 27,060 오영주 175,420 이숙기 13,950 이혜진 13,870 장상만 57,450 재정순 15,220 전윤숙 10,000 정상만 53,310 최광수 15,000 최인순 15,440 홍기자 16,330 홍문당 18,780

○ 해외

독일정토회 755,694

류동수 유로화 30.90 민경호 유로화 15.31 박승주 유로화 23.83 박찬진 유로화 35.01 송임덕 유로화 100.00 이인아 유로화 100.00 이혜정 유로화 210.00 조연숙 유로화 40.00

LA정토회 42,65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3. 8. 20 현재

라질 · 넬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3. 8. 20 현재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모금통

유윤식 / 제천자원활동가, 거리 모금팀

지난 3월 1일 우리 가족에겐 잊을 수 없는 거리모금이 시작되었다. 바로 우리가족부터라도 거리모금을 시작하면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를 나선 것이다.

그러나 거리모금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모금을 앞두고는 많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다. 아침 기도시간에 아내와 나의 '관세음보살' 주력에 더욱 힘이 들어가고 중앙에서 지원 받은 모금물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사전 모의연극까지 했다.

제천에서는 처음 열리는 기아난민돕기 거리모금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 가족은 약간의 어색함 속에서도 열심히 거리모금을 진행하였다. 모금대상은 모금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호사스런 아가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그들에게 복지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서란다. 그러나 역시 어린 학생들은 순수하고 착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100원 500원 용돈을 털어내는 아이들의 마음이 기특하다.

“지금도 지구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니?”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눈을 둥글게 뜨며 모르는 눈치다. 하루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는단다. 너희들에겐 하찮은 100원 짜리 동전이지만 못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내는데 소중한게 쓰인단다.”

많은 돈을 모으려는 생각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어린이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체대비의 자비심으로 함께 도와주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거리모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의 거리모금은 모금통에 빨간 동전들이 모여져 작은 기적을 이루어낸다.